
시민 대토론회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14:00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

주최 |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예총, 인본사회연구소,
나락한알, 부울경문화연대 부산지회, 부산미술실천포럼,
부산미술연대, 부산환경회의

시민 대토론회

<풍피두 부산분관 유치 무엇이 문제인가?>

- ◎ 사회 :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 좌장 : 서세욱(전 목요학술회 회장)
- ◎ 발제
 - 발제1 : 풍피두 분관 유치, 약인가, 독인가
정준모(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 발제2 : 풍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
남송우(부경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 발제3 : 풍피두 분관 유치와 부산지역문화정책, 그 진단과 방향
옥영식(미술평론가)
 - 발제4 : 이기대의 자연환경과 풍피두 분관 건립과 예술공간 조성의 문제점
박상현(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 토론
 - 토론1 : 박경효(시각예술가 겸 문화기획자)
 - 토론2 : 성백(시각예술가,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 대표)
 - 토론3 : 황빛나(미술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아트시넵스대표)
- ◎ 일시 :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
- ◎ 장소 : 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
- ◎ 주최 :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예총, 인본사회연구소, 나락한알, 부울경문화연대 부산지회, 부산미술실천포럼, 부산미술연대, 부산환경회의

시민 대토론회

- 풍피두 부산분관 유치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풍피두 분관유치, 약인가, 독인가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비평) 07
2. 풍피두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
- 남송우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 부경대 명예교수) 20
3. 풍피두분관유치와 부산지역문화정책, 그 진단과 대안
- 옥영식 (미술평론가) 28
4. 이기대의 자연환경과 풍피두 분관 건립, 예술공간 조성의 문제점
-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33
5. 풍피두 분관 건립에 대한 견해
- 박경효 (화가, 그림책 작가) 45
6. 부산 문화 발전에 풍피두가 꼭 필요한가?
- 성백 (시각 예술가) 48
7.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 아닌)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산시의 선결과제
- 황빛나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미술사) 51

발제

1. 풍피두 분관유치, 약인가, 독인가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비평)
 2. 풍피두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
 - 남송우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 부경대 명예교수)
 3. 풍피두분관유치와 부산지역문화정책, 그 진단과 대안
 - 옥영식 (미술평론가)
 4. 이기대의 자연환경과 풍피두 분관 건립, 예술공간 조성의 문제점
 -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 

풍피두 분관유치, 약인가, 독인가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비평)

무려 풍피두가 2개?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통칭 풍피두미술관 분관이 두 곳이나 있는 문화국가(?)가 될 모양이다. 하나도 아닌 무려 두 곳이나 말이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인 한화의 한화문화재단이 풍피두와 계약을 맺고 2025년 즉 내년에 서울 여의도 한화빌딩에 '풍피두 서울 한화'를 개관할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부산광역시도 풍피두미술관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더니 2022년 분관유치에 합의한 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 2024년 9월 19일 비대면 화상 미팅을 통해 '풍피두센터 부산'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속열차로 2시간 15분 거리를 사이에 둔 두 개의 도시에 세계적인(?) 미술관 풍피두미술관 분관이 운영되는 문화선진국(?)이 될 모양이다. 아쉽게도 민간기업이 오너의 결심과 경영진의 판단으로 빠르게 의사를 결정하는 데 비해 시민들의 동의와 시의회 의결 등이 필요했던 부산시는 한발 늦게 업무협약을 발표하면서 김이 좀 빠진 상태다.

부산이나 한화 함께 풍피두 분관을 유치하려 했던 인천공항 공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분관을 희망했던 인천시는 한화문화재단이 서울에 유치를 확정 짓자 계획을 거두어들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풍피두 분관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시도는 2014년 새만금, 2016년에도 서울도 나선 바 있지만 결국 한화문화재단이 풍피두와 계약을 성사시켜 서울 여의도 한화빌딩에 문을 여는 것으로 이미 설계자와 건축안까지 발표하면서 발을 뺀 모양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한화문화재단이 2023년 7월 서울에 분관유치를 결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풍피두 부산관을 추진하더니 부랴부랴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을 맺을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왜 이렇게 조급한지 알 수 없지만, 기왕에 서울에 한화문화재단의 풍피두 서울이 2025년 연말에 문을 연다면 꼭 세계적인(?)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부산시는 다른 미술관 예를 들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이나 뉴욕근대미술관(MoMA), 분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구겐하임(Guggenheim)이나 러시아의 에르미타주(Hermitage), 오스트리아 빈의 빈 미술사 미술관(Kunsthistorisches Museum), 프랑스의 루브르(Louvre)나 이탈리아의 우피치(Uffizi), 스페인의 프라도(Prado) 같은 미술관의 분관유치를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는 일에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우선 이미 민간기업이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계속해 분관유치를 추진해 결국 협약을 맺는 부산시의 태도는 상도익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풍피두도 서울에 이미 분관 설치를 약속한 마당에 또 부산과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였다. 설혹 부산시가 한화문화재단보다 앞서 유치협의를 시작했다 해도 어느 한 곳이

유치에 성공하면, 다른 곳은 그 계획을 접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사실 프랜차이즈형 편의점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가맹점을 내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마당에 좁은 대한민국에 두 개의 풍피두 분관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약 부산시가 분관유치에 먼저 성공했다는데 한화문화재단이 풍피두 서울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게다가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친 시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공익적 활동을 공공이, 부산시가 이와 경쟁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도 좀 민망한 일이다. 특히 세금을 사용하는 부산시가 민간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을 통한 기업활동과 경쟁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민간기업이 문화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부산시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민간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공공은 원래 민간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셈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이런 조치는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이런 공공과 민간의 경쟁이라는 부정적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산시의 풍피두 분관유치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도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물론 이런저런 시민단체가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그 배경에는 부산시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구심 또한 여전하다. 부산시의 풍피두 부산 유치에 시민들이 성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왜 지금 부산에 풍피두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얻지 않은 채 “밀어붙인” 때문이란 생각이다. “또 지금까지 뭣하다가 이제 와 갑자기 풍피두 분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산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시가 풍피두 부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시민사회와 국내 문화예술계의 손가락질을 자초했다. 부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우선 부산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가급적 기밀을 유지하고자 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전시 운영계획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내 4,48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896명이라는 대단한 사업을 왜 쉬쉬하면서 추진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렇게 문화적이며 동시에 경제성까지 있는 사업을 왜 당당하게 자랑하듯 내놓고 추진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진즉에 시민들의 반대를 예견했기 때문일까. 만약 이런 반대 의사를 감지했다면 더더욱 진중하게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부산시의 추진 태도 때문에 시민들의 반감을 더욱 키웠다면 이는 정책입안자와 추진하는 이들 모두의 실책이다.

이후 시의회의 풍피두 부산 유치에 관한 사업을 동의받는 과정에서도 “세계적 미술관

분관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당사자 간의 사전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 비공개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많고 많은 세계적인 미술관중 어떤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인지도 한다는 모른 채 시의회에 동의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후 시민사회가 8월 27일 풍피두센터 분관유치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자, 하루 전날 긴급히 내부 결재를 받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맞불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시장이나 담당 국장 등 관련 인사가 참석해 오히려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부산시의 풍피두 부산유치를 위한 무리수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 풍피두 부산유치를 두고 이를 통과시켜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풍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국내 유일 분관’이라고 허위보고해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독창적 전시’를 강조했지만 ‘국내 유일’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글썄 ‘독창적인 전시’와 ‘국내 유일’이란 말을 두고 불쌍사납게 서로 논박할 일이 아니라 왜 부산에 풍피두 분관이 필요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유지하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부산시민의 문화복지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더욱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던 것 아닐까. 물론 시의회의 입장이 만약 부산시의 풍피두 분관이 세계적인데 국내에서는 부산에 유일하다면 모든 것을 용인하고 동의했을 것이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는 시의회도 큰 잘못이다. 아무튼 부산시는 풍피두 부산관 유치를 위해 속도전을 펼쳐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이로 인해 약 1년 6개월의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2027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상반기 개관한다는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어려운 모양이다. 그간 시청의 대응은 시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일을 시민사회가 어깃장을 놓는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투명성을 결여 한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더욱 일을 키워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세계적인 미술관?

부산시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정책은 참으로 유치하다. 우선 아무리 생각해도 필자는 물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말에서 ‘세계적’이란 의미이다. 무엇이 세계적이란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 세계적인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한다는 설명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부산시는 가장 먼저 세계적인 미술관의 개념부터 정리해서 시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막연한 ‘세계적’이란 말 하나로 산술적으로 거칠게 계산해도 건축비가 일천억 넘게 들어가고 매년 일백억 이상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며, 10년이 넘어가면 누적 운영비가 건축비를 넘어서는 사업을 ‘세계적’이란 단어 하나로 농치기에는 논리가 부족했다.

그럼 부산시가 말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무엇일까. 부산시가 풍피두 분관유치를

위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말은 있어도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없다. 매우 모호한 말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이려면 소장품이 많은 미술관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건물이 멋진 미술관? 매우 지역적인 미술관은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없는 것일까? 풍피두가 세계적인 미술관이려면 또 다른 세계적인 미술관은 없다. 도대체 막연하기만 한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추상적인 단어로 엄청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는 오산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치적 쌓기에 낭비되는 세금을 이미 보아 온 때문이다.

사실 풍피두 부산 유치에 관한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분관이 부산에 필요한가 라는 점이다. '문화도시' 부산을 위해서 그에 걸맞은 세계적인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리한 추진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외국의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는 것이 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상의,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점이다.

부산시는 1998년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과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8년 개관한 부산현대미술관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2개나 되는 미술관을 운영하면서도 문화도시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와 부산시민들이 왜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반성과 진단이 먼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시는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도 늦지 않았다. 그간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은 개관 이후 부산시민들의 문화적 예술적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왜 타 시도에 비해 제법 규모가 큰 미술관을 2곳이나 운영하는 부산시가 왜 무엇을 시민들이 부족하다 느끼는지부터 연구용역이라도 해야 했다. 사실 필자는 부산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립미술관을 가로막는 백스코 증축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산현대미술관 건립을 검토할 당시 현재 운영 중인 부산시립미술관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사실 부산시는 미술관이란 집만 지어놓고, 비가 새도 내버려 두고, 미술관을 가로막는 백스코 증축에 나 몰라라 하다, 거금 430억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시작한 마당에, 갑자기 최소한 1,000억 이상 들여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매년 30억 원 가까이 로열티를 내야 할 풍피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시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했던 것일까. 만약 풍피두 부산을 유치하면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과 시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서로 분담해 시너지를 낼지, 세 기관을 어떻게 특화하고 연결시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일을 벌인 것은 성급했다. 이런 태도는 기존의 부산시립과 부산현대미술관이 성에 차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버리고 남의 나라 미술관 분관을 가져다 새롭게 시작하는 식이니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싫증이 나자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

을까.

만약 풍피두 부산을 유치해서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성에 차지 않으면 그다음 또 다른 세계적인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설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문은 풍피두 부산을 유치하기만 하면 곧 세계적인 미술관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보장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풍피두 부산이 개관하면 문화도시 부산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사실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소장품과 건물도 아름답지만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세계적이라 일컫는 루이지애나 근대미술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이 있고, 미국의 스톰 킹 아트센터(Storm King Art Center)도 있다. 특정한 시기, 특정 유파의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의 반열에 드는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이나 에곤 실레의 작품 컬렉션으로 유명한 레오폴드 미술관(Leopold Museum), 베를린의 다리파 미술관(Brucke Museum), 청기사파(Der blaue Reiter)의 작품을 주로 소장한 렌바흐 하우스 미술관(Lenbachhaus Museum)도 세계적인 미술관의 하나다. 랭부르 형제(Les frères de Limbourg)의 <베리 공작의 호화로운 기도서>(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를 소장한 프랑스 상티이 콩테 국립 미술관(Musée Condé Chantilly)이나 앤트워프의 마이어 반 덴 베르그 미술관(Museum Mayer van den Bergh)은 작지만, 북유럽 르네상스 예술 작품 1,000여 점을 소장한 것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부산시다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산에만 있는 미술관을 만든다면 가히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것이 틀림없다.

박물관학에서 말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은“관객들이 미술관에 들어서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어떤 미술관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미술관”을 말한다. 사실 누군가가 자신 또는 특정 도시나 나라의 미술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고 할 때마다 필자는 긴장한다. 박물관학에서 ‘세계적 수준’이란 자체적인 기준과 규칙을 가진 매우 특정한 카테고리에 속한 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런 기관은 지역 사회의 요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공립의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민간의 경우 설립자의 요구만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각각의 미술관 박물관의 콘텐츠가 표현 방식이나 조사연구, 전시에서 각각 설립목적과 성격, 임무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월드 클래스’라는 국제적인 하나의 형태로 고착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는 문화의 종 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획일화, 지역 예술의 소외, 역사적 불평 등이 강화되는 폐해가 나타나고, 세계적이란 구호를 앞세운 프랜차이즈 형 미술관은 깊이 있는 예술 감상보다 표면적인 경험에 치중하게 해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배척하는 이유이다.

제아무리 부유한 도시라고 해도 한정된 자원을 규모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에 우선 투입하다 보면 자원의 독점으로 인해 소규모 미술관이나 지역의 다른 박물관의 자금지원이 어려워져 예술과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온타리오 과학 센터(Ontario Science Centre)는 관객을 맞이하는 방식이 '세계적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시애틀의 윙 루크 아시아 박물관(Wing Luke Museum)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되고 있어 '세계적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미술관(Columbus Museum of Art)은 관객들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 예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불린다.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미술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미술관인가에 달려있다.

풍피두는 누가 왜 어떻게 유치를 결정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유치가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전가의 보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부산시가 풍피두미술관 부산관을 선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목표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정 업체나 기관을 선정하려면 최소한 그 사업을 수행해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위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널리 해당되는 기관이나 업체를 찾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고를 낸다. 물론 특별한 경우 평소 같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 업체나 기관 그리고 세평이나 평판이 좋은 곳을 골라 지명공모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즉 미술관들의 제안서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분석하며, 예산이나 기타 비용의 문제, 소장품전시와 특별전의 기간과 횟수 등등 많은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풍피두 분관 유치과정을 보면 이런 공모나 심사라는 선정 절차가 생략된 채 풍피두로 낙점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부산시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부산시가 발주한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를 위한 사업의 용역보고서를 아무리 들춰보아도 최소한 몇 개의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유치를 검토해 각 기관의 분관을 유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소요 예산 등을 비교하고 각종 자료와 제안사항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할 터인데 왜 풍피두 분관유치가 부산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해 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는 풍피두와 경쟁할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 여러 도시와 민간기업의 재단법인이 풍피두 분관을 유치하려고 나선 마당에 타 도시나 기업의 문화재단이 부산시보다 먼저 유치계약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부산시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세계적인 미술관들을 차치하고 풍피두 분관을 유치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졌던 것으로 보여 이런 때문에 시민사회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퐁피두 부산은 미술관이 아닌 전시관

그렇다면 부산시가 유치하려는 퐁피두 부산은 미술관일까. 우선 답부터 하자면 박물관학(Museology)에서는 미술관(Art Museum) 즉 미술박물관이 아니라 전시관(Gallery, Kunst Halle)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자체 소장품(Collection)이 없이 퐁피두미술관의 소장품을 대여 또는 대출을 받아다 전시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술관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미술박물관의 줄인 말이 미술관으로 미술관은 우리 공동의 기억과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 미술관은 소장품을 수집한다. 미술관은 미술품 즉 미래의 문화유산을 수집함으로써 과거의 물리적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뿌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존재한다. 또 미술관은 과거와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여주며 모든 연령대의 사회구성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상호 작용하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시물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컬렉션 즉 소장품은 다양한 문화와 커뮤니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반영하며 개인과 그룹 또는 사회가 자신의 유산과 연결되고, 소속감을 갖도록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 미술관은 학자, 역사가, 과학자는 물론 고고학, 인류학부터 미술사,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소장품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또 미술관은 인간의 업적과 예술적 표현을 보여줌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에 영감을 불어넣어 예술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특히 미술관은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며, 사람을 한곳에 모아 경험을 공유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공동체 의식과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박물관학자를 위시한 문화예술인들이 퐁피두뿐 아니라 외국미술관 분관유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위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모두 그 규모와 컬렉션의 다양성, 그리고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정의되는 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같은 곳은 수백 년에 걸친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대중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자국의 문화적 예술적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철저하게 국익과 국가의 문화적 총량을 과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 분관유치를 우려했고 퐁피두 부산 유치를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퐁피두 분관의 전시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소장품이란 바로 그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퐁피두미술관의 소장품은 프랑스의 근대정신이 투영된 작품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이어진 것으로 프랑스의 근대문화와 정신이 반영된 프랑스의 컬렉션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문화적 성취를 인류사의 보편적인 결실처럼 보여주는 동시에 자국의 문화적 예술적 우월성을 타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스스로 문화적으로 속국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사실 지난 시대에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자국의 우수한 문화를 공유하고 보급한다는 명분을 들어 자국

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파해 정신을 지배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무단정치를 버리고 문화통치를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돈 먹는 하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세운 우리의 미술관은 제대로 예산이나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던 부산시가 풍피두 분관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모양이란 점도 시민들은 못내 아쉽다. 일단 타 도시에 있는 기존의 풍피두 분관은 대개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갱신할 때마다 약 15%씩 로열티가 인상된다. 르몽드의 보도에 의하면 ‘풍피두 센터 한화 서울’은 4년간 매년 약 200만 유로(약 28억 원)를 지급하는 한편 연 1회 풍피두 소장품으로 구성하는 상설전시와 소장품을 활용해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연 1회의 기획전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연 1회 상설전시와 1회의 기획전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한화문화재단은 정보공개의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 해도 부산시까지 모든 정보나 자료를 시민사회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풍피두 한화 서울의 계약 기간이 4년 즉 2029년 1차 계약이 종료될 것이란 점을 들어 2031년 풍피두 부산관이 유일한 국내 분관이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인 한화문화재단도 고작 4년을 운영하기 위해 약 1,500억 원이란 비용을 투자해 건물을 미술관 용도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할 리는 없다는 점 그리고 풍피두 측도 서울과 부산의 두 분관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부산시의 희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부산시가 예상하는 풍피두 부산관에 투입하려는 예산은 건축비 1천 81억 원에 매년 로열티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연간 60억 원을 예상하지만, 다른 외국의 분관을 예로 추정해보면 약 3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운송비, 보험료,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별도로 부산시가 지불해야 하며 보험이나 운송사 선정권도 풍피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 로열티는 세후 30억 원을 송금하도록 되어있어, 풍피두 측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 22%, 즉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부산시가 부담하고 송금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세세한 지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건축비도 2027년 착공해서 31년 완공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어림잡아 최소 1,200~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연간 운영비로 125억 원 정도를 투입하며 연간 46만여 명이 방문해 입장료 수입 등 수익을 50억 원으로 추계해 매년 75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말라가의 150만 인구와 해외 관광객 등의 숫자를 볼 때 말라가의 연간 방문객이 20만이란 점을 감안하면, 인구 320만의 부산시가 추산하는 46만 명의 방문객 숫자는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런 추계는 추계일 뿐 전시기획과 도록 발간, 임시 수장고 관리 등등 세세한 필수경비를 포함하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실 풍피두 부산의 운영예산 추계는 부산시립미술관의 연간예산과 부산현대미술관

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의 부산시립과 부산 현대미술관과 어떤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실 지금까지 미술관 2곳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했던 부산시가 미술관 하나를 그것도 무려(?) 풍피두 분관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니, 미덥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정작 추후 우리 동시대 미술의 정체성을 형성할 컬렉션은 하지 못하는 “불임의 미술관” 즉 전시관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즉 풍피두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소멸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몰되는 비용으로 컬렉션을 한다면 작품이라도 남을 것이란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게다가 만약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과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부산시 재정이 어려워져 연장계약에 실패할 경우, 또는 부산시의 시장 등 지도부가 교체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아 풍피두가 떠난다면 시간이 흘러 남아버린 건물만 남을 수도 있다.

현재 알려진 것처럼 연간 풍피두가 자신의 소장품을 활용해 1건의 상설전시와 1건의 기획전시를 제공한다면 통상 소장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6개월 이상 전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상설전시 1건과 최소한 2개 이상의 기획전시는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가장 오랫동안 풍피두 분관을 운영해온 말라가의 경우 대략 기획 전시건 상설전시건 모두 합해 연간 2~3회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풍피두 부산도 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회 정도의 자체 기획전을 개최하는 선에서, 풍피두의 수준이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10~1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모르겠지만 풍피두가 기획해서 해외 분관에 보내는 전시가 일반적으로 관객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진, 디자인, 건축 및 비디오 아트에 치중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이며 세부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그냥 작품을 하는 미술계 인사가 아닌 그림 미술관 업무와 전시기획 컬렉션 등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조언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드는 법

우리가, 부산시가 글로벌 문화도시, 문화도시 부산의 완성을 위해 세계적인 미술관을 세우는 방법은 외국의 유명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는 방법이 최선일까 아니면 그 외의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시민사회나 문화예술계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그 대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향후 풍피두 부산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로열티 등을 추산해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건축비 약 1,200~1,300억 원, 연간 운영비 150억 원~200억 원, 로열티 3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만약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풍피두 부산을 위해서 정말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손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세계적인 미술관이란 박물관학에서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독창적인 특별한, 유별난 미술관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부산의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 현대미술관의 역할을 먼저 명확하게 하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부산시립미술

관은 부산의 근대미술관으로 성격을 잡고 부산과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의 1900년대~1980년대 미술에 집중해서 전시와 컬렉션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국의 부산과 아시아 미술품의 수집에 집중하면서 이와 함께 전시도 아시아 지역 회화에 중점을 두어 적어도 10여 년을 컬렉션에 집중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 적어도 최소한 세계적인 아시아 미술에 정통한 미술관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 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에 집중하는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선도하는 현존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과 아이디어를 경험하고 우리 시대 예술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한편 야심 찬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부산시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동시대 작가들의 미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문화적 타임캡슐로서 미술관 컬렉션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실 미술관의 성격은 독창적인 컬렉션에서 나온다. 또 세계적인 명성의 배경에는 그만큼 남다른 컬렉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세계적인 미술관과는 거리가 있지만 적어도 20~30년 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미술관이 대여를 요청하는 미술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하기 어렵고 비싼 소위 이미 명성이 굳어진 작고 작가나 원로작가들로 구성된 트로피 아티스트의 작품이 아닌 동시대의 흐름과 정신, 사회를 투영하는 동시대 미술 컬렉션의 완성을 위해 역량을 다할 필요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날의 MoMA 즉 뉴욕근대미술관이 유명해진 것은 1929년 당시 개관한 이후 종래의 미술관들이 외면했던 건축과 영화 그리고 디자인을 컬렉션에 포함시켜 20세기 미술의 새로운 면모를 수집하고 기록해 온 때문이다. 에스티로더 그룹이 운영하는 뉴욕의 노이에 갤러리(Neue Galerie)는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19~20세기 미술품만을 수장 전시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오늘날 폰피두의 명성의 배경에는 폰투스 훌텐(Pontus Hultén, 1925 ~2015)의 역할이 크다. 폰피두의 초대 관장이었던 그는 1977년 개관 당시 컬렉션과 전시의 방향을 오늘날과 같이 20세기 미술에 집중하면서 20세기 미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폰피두를 이끌었다. 또 스톡홀름의 근대미술관(Moderna Museet)의 디렉터로 일하면서 이 미술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 20세기 미술의 강자로 키워놓았다. 또한 큐레이팅은 물론 전시 디자인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미술관의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관은 세상에 너무나 많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보이만스 반 뷔닝겐 미술관(Museum Boijmans Van Beuningen)은 건물 자체가 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 미술관인 동시에 초현실주의 미술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컬렉션이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리볼리성 동시대미술관(Castello di Rivoli Museo d'Arte Contemporanea)는 1984년 개관 이래 가장 소장이 용이한 196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의 동시대 작품을 수집해 오늘날 동시대 미술의 보고가 되었다. 특히 초대 관장으로 부임한 루디 폭스(Rudi Fuchs, 1942~)가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약 8년을 재임하면서 컬렉션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이래, 2000년부터 지역 사회의 민간재단이 약 4천

만 유로(약 595억 원)를 투자해 소장한 870여 점의 국제적인 동시대 미술품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미술관의 컬렉션 방향을 설정한다면 동시대 즉 오늘날 활동하는 젊은 작가 중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후일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후 변화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관심을 지닌 많은 예술가가 친환경이란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재료의 재활용,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 등 지속 가능한 예술이 큰 줄기를 이룬다. 또 정체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주제에 천착하는 작가들도 많다. 이런 경향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며, 종종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는 강력하게 생각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이어진다.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추세다. 예술가는 인공지능,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과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몰입형 인터랙티브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개념 미술과 미니멀리즘 미술은 예술가들이 전통적인 미학보다는 아이디어와 개념에 집중하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단순성, 명확성과 시청자의 지적 참여를 강조한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사회참여형 예술도 동시대 미술의 한 현상이다. 이런 류의 작가들은 시사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를 옹호하고, 대중의 참여와 대화를 장려하는 작품을 제작한다. 물론 이렇게 많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수집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 특성도 없는 컬렉션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의 컬렉션이 보잘 것 없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모두 수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대 작가들의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를 반영하는 특정한 내용이나 형식의 동시대 미술에 집중해서 컬렉션을 완성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술관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관장으로 구성된 내부 작품수집위원회와 재단 이사 및 국내외 미술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외부 작품수집위원회를 구성해 서로 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관계 속에서 1년에 2~3회로 나누어 특정 주제와 장르를 다루는 동시대 미술품을 수집할 것을 권한다. 리볼리성 동시대 미술관은 25년간 600억 원을 투입해 870여 점을 소장했다니 부산시의 건축예산 1,000억 원이면 연간 100억씩 10년간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특정유형의 작품을 수집한다면, 최소한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특정 작가들과 경향의 작품 1,400여 점 이상을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미술관이 부러워하는 컬렉션을 갖춘 남다른 독창적인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 컬렉션을 이루려면 적어도 미술관장의 임기가 7~8년은 보장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는 토리노 리볼리성 미술관이 증명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좋은 미술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고 맡기는 좋은 시스템과 예산 그리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부산시민들이 열광하고 외국의 관광객이나 부산 외의 지역 주민들이 부산으로 걸음을 옮기는 미술관을 만들려면 부산시립미술관은 소위 주요 미술사를 구성하는 작

가와 작품들을 엄선한 블록버스터(Blockbuster)형의 전시를, 부산현대미술관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작가의 새로운 경향이나 실험적인 작품들을 기획하면 될 것이다. 이는 부산시가 풍피두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약 30억 원과 운영경비 125억 원이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아니 남을 예산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은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인상주의나 고흐의 특별전 또는 특정미술관의 소장품을 대여했다 전시를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25년 고흐의 특별전을 마련해서 오사카, 나고야 그리고 도쿄를 순회하는 전시계획을 마련해 준비 중이다. 우리도 몇몇 지역의 미술관이 협업해서 예산과 인력 등을 분담해 이런 블록버스터 형 전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전시가 열린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부산시립미술관이 주도한다면 이 또한 부산시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자긍심을 끌어 올리는 일이 될 터이다.

사실 이런 기획전시의 기회와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세계의 모든 미술관은 자신들의 소장품 전시를 통해 대여해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마음만 먹고 예산과 시간 그리고 향온 향습 등의 필요한 시설만 갖춘다면 그들의 소장품은 우리의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위 세계적인 미술관들도 타 국가나 타 지역민들에게 함께 감상할 기회를 준다는 명분과 함께 대여비(Loan Fee) 수입이 적잖기 때문에 이런 순회전을 기획하는 것을 반긴다. 그리고 기꺼이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장품 대여를 반가워한다. 사실 세계적인 미술관이건 변방의 작은 소소한 미술관이라 할지라도 많은 미술관은 서로 소장품을 대여해 주고 대여해서 전시를 만드는 교류와 협력이 일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풍피두 분관을 유지하는 순간 그 외의 미술관과의 교류 특히 소장품 교류는 제한을 받을 것이며 풍피두 한 곳으로 한정되고 말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세계의 많은 미술관과 교류하고 그들의 컬렉션을 대여해 전시할 기회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이다. 풍피두미술관 소장품이 12만 점이라지만, 전 세계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미술관의 소장품 수는 그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르는데 왜 스스로 풍피두에 목을 매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려는지, 왜 운신의 폭을, 직접 나서서 그 가능성을 한정하려는지 알 수 없다.

부산현대미술관의 경우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어 전국각지의 애호가들이 찾았던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 Murakami Takashi, 1962~) 전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개최했던 1993년의 휘트니 비엔날레, 1997년 토니 크랙(Tony Cragg, 1949~)전, 2000년 개최한 당시는 국내에 생소했던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전, 2011년 열었던 <이것이 미국 미술이다:: 휘트니미술관>전 등은 이런 해외미술관 소장품을 대여해다 개최한 전시의 예는 얼마든지 많다. 특히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선보임으로써 당시 한국 미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미술이 급성장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부산시립과 부산현대미술관이 쌍두마차가 되어 르네상스에서 근대까지 그리고 부산현대미술관이 동시대 미술을 견인한다면 국내 최고의 미술관으로 자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미술관들을 분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그리고 이렇게 컬렉션을 10여 년이나 하다 보면 21세기 전반부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컬렉션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부산시에 제안한다. 문화 속국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는 풍피두 부산관 유치를 위해 성급하게 민의를 거스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풍피두 부산관 유치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보태 현재의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 현대미술관을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키워나갈 것을 말이다. 이미 그 방안은 필요하면서 충분하게 글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우리 이름을 가진 브랜드 미술관 육성과 프랜차이즈미술관 유치 중 중·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시민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지 충분히 열린 공간에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다만 사족을 단다면 부산시가 토론을 원한다면 그간 풍피두미술관과 주고받은 서신과 협약서 등 각종 문서와 유치과정과 조건, 그리고 풍피두미술관을 선정한 이유, 이를 결정한 사람 등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공개하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풍피두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

남송우(전 부산문화재단 대표, 부경대 명예교수)

1. 부산시 문화 행정의 난맥상

부산시가 그동안 비밀리에 풍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협상을 프랑스 풍피두 미술관 측과 진행을 해왔다. 그랬기에 부산지역 미술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 협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진정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풍피두 분관 유치를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해온 분관 유치를 위한 문화 행정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문화가 갈수록 지역소멸이라는 현실로 인해 점차 쇠락해져 가고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입안하면, 이를 지역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도 이 법에 따라 부산지역문화진흥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풍피두 분관 유치 같은 시비가 엄청나게 드는 사업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심의과정도 필수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인 경우는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풍피두 분관 유치 건은 풍피두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과정은 모두 생략되었다. 풍피두 분관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 1월 19일 박 시장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에 갔을 때, 풍피두센터 관장과 만나 부산분관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 이를 공론화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적은 없으며, 오직 시 내부 관련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해왔다.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했기에 이 안건을 2024년 7월 23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안하여 그것도 비공개로 심의한 것이 드러났다. 비공개 심의의 이유는 풍피두 측과 비밀리에 협의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럼 도대체 풍피두 측과 비밀 협상한 내용이 무엇이기에 부산시가 이렇게 문화 행정을 파행적으로 집행했을까? 이 궁금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풍피두 측과의 협상 내용 문건이 있어야만 파악할 수 있다. 시가 이를 비밀 문건으로 대외비로 하고 있었으니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 열쇠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부산시 국감 자리에서 풍피두 협상 문건이 이소

영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비밀문서이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협상 문건이 부산시의 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 의원 보좌관이 확보해서 전달함으로써 시 행정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한다.

2. 굴욕적인 협상 문건의 진상/우리가 프랑스의 속국인가?

부산광역시와 조르주 폼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 양해각서의 내용은 서문,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설명, 제3조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일 및 기간, 제5조 재무조건, 제6조 기밀 유지/소통, 제7조 종료, 제8조 양해각서의 구성요소, 제9조 언어와 준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부를 정본으로 간주하며, 파리 또는 부산에서 서명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안은 폼피두센터와 부산시는 대중 개관일로부터 5년 동안 잠정적으로 폼피두센터 부산이라 칭하는 문화시설을 부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아래 4조에 명시된 기본계약을 통해 대중 개관일로부터 5년 후 파트너십 연장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두 기관 간의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년 이후 연장의 문제는 4조에 명시된 기본계약을 통해 연장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2024년 7월 31일)를 통해 “폼피두센터 부산은 서울과는 달리 영구적 시설입니다”(부산일보, 2024년 8월 1일 자)라고 밝힘으로써 협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자 먼저 폼피두 분관을 유치해서 개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한화문화재단은 부산시에 항의를 했다. 박 시장의 발언 속에는 서울 한화의 폼피두와의 계약은 단회적으로 혹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의 항의에 화들짝 놀란 부산시는 한화문화재단에 급하게 사과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과 공문의 주 내용은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박 시장이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과 언론 보도가 다르기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언론사에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이를 아주 사소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부산시가 오직 폼피두 분관 유치만을 위해 어떠한 비상식적인 현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 2조 <사업설명>에서 중요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2.1 폼피두센터 부산은 소유자인 부산시가 확인하고 제공한 총 표면 면적 약 15,000㎡ 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간(이하 “미술관 건물”이라 한다)을 5년 동안 점유한다. 미술관 건물의 임시 계획 및 사업 진행에 할당된 공간의 위치는 본 양해각서의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미술관 건물 내 전시 예정인 폼피두센터 소장품에 해당하는 작품의 안전과 최적의

보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풍피두센터 담당 부서가 수립한 세부 계획에 의거하여 부산시 소유 자산인 미술관 건물은 재개발될 예정이며, 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은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다.

<2.1>의 협의 내용 중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은 “풍피두센터 부산은 소유자인 부산시가 확인하고 제공한 총 표면 면적 약 15,000㎡ 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간(이하 “미술관 건물”이라 한다)을 5년 동안 점유한다. “라는 부분이다. 풍피두 측이 부산에 건립되는 분관에 대해 점유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 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협약상태이기에 부산시는 풍피두 분관을 지어 풍피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풍피두가 이렇게 완전히 자신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미술관 건축에 필요한 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은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다고 협약되어 있다. 풍피두는 부산에 분관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냥 공짜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협약되어 있다.

그래서 풍피두는 <제2.1조>에서 “명시된 미술관 건물을 점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관 내에서 계약 기간 동안, 더 제한된 규모를 포함해, 부산시는 본 사업과 유사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회 개최되는 전시를 위한 국내외 타 문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점유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풍피두가 가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풍피두센터는 계약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화와 맺은 계약은 “풍피두센터는 양해각서 체결일 기준 서울에 이미 존재하며 풍피두센터 부산 사업과는 다른 풍피두센터 파트너십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붙여둠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두 개의 풍피두 분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풍피두가 오직 분관 유치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부산시가 처음 발표한 한화와 풍피두와의 계약이 끝나면 부산 풍피두 분관이 단독

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은 엉터리였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일방적인 협약 내용은 <2.5> 내용에도 이어진다.

2.5 사업의 기본 구상 내에서 풍피두센터의 작품에 대해 부산시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삼는 운송 작업 전반에 대한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부산시가 담당한다. 작품 운송은 예술 작품 운송의 국제적 공조 및 조직에 전문화된 평판이 좋은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풍피두센터 작품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양 당사자는 동의한다. 선정된 운송 업체에 대해 모든 운송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풍피두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양 당사자는 사업 동안 풍피두센터 부산을 위해 구상된 기획전 전체 혹은 일부가 풍피두센터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타 문화시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산 풍피두 분관에 전시할 작품의 운송에 대한 모든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전부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실질적인 책임은 부산시가 지면서 운송 작업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풍피두센터 작품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으며, “선정된 운송 업체에 대해 모든 운송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풍피두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었다. 이는 철저히 모든 것은 풍피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그 실질적인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전부 부산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는 사업 기간 동안 풍피두센터 부산을 위해 구상된 기획전 전체 혹은 일부가 풍피두센터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타 문화시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협약함으로써 풍피두는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획전을 다양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있다. 이러한 협약조건이라면 부산시는 독점적인 기획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지고 만다. 다음 제5조인 <재무조건>을 살펴본다.

5.1 사업의 기본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부산시가 세금을 제외하고 사백만 유로(€4,000,000)를 매년 풍피두센터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즉, 계약 기간 동안 총 지불 금액은 이천만 유로(€20,000,000)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본 양해각서 제2.3조에 명시된 상설전 및 기획전과 교육 활동 주관을 위한 작품 제공 및 기여에 대한 비용 연간 이백만 유로(€2,000,000)
- 사업을 위한 풍피두센터 상표 사용권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연간 브랜드 사용료 이백만 유로(€2,000,000)

이러한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지불은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데 동의한다. 지불 일정은 기본계약에 상세히 명시한다.

상기 협약 내용을 보면 연간 풍피두에 지불하는 공식적인 금액은 120억이다. 이 금액은 그동안 부산시가 내세운 예산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부산시는 로얄티를 연간

30-50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은 위의 협약 내용에서 제시된 예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문제는 모든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세금을 전부 제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연간 예산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지불도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도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풍피두는 앉아서 돈만 챙기는 꼴로 전략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된 이외의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5.2>, <5.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2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한다. 부산시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풍피두 센터가 각 사업 시작 전에 해당 비용에 대한 예상 금액을 부산시에 제시한다. 풍피두 센터는 부산시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

5.3 기본 계약에는 작품에 대한 보험과 운송(특히 목상자 포장, 포장, 해체, 재포장, 반환 시 운송, 통관 절차 및 프랑스와 한국 영토로의 출입국 절차 등) 및 상기 제2.3조에 명시된 사업 중 상설전과 기획전, 문화 및 교육 활동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요소에는 풍피두 센터의 전문가들, 사업 관리 팀, 작품 운송을 관할하는 운송 업체의 업무를 위해 풍피두 센터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지불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할 뿐만 아니라, 풍피두센터의 전문가들, 사업 관리팀, 작품 운송을 관할하는 운송 업체의 업무를 위해 풍피두센터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있다. 이는 바로 풍피두 부산분 관에서 전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부산 풍피두 분관을 점유한 풍피두에 부산시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형국이다. 이러한 내용의 협약도 모자라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밀 유지/소통>의 협약까지 내놓고 있다.

6.1 각 당사자는 본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본 양해각서에 등장하는 모든 조항 및 첨부 문서에 관하여 상호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를 각 조건의 기밀성을 통지받고 수용하는 직원들과 조사, 감독, 허가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 및 모든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위의 기밀 협약을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피두는 미술관 분관을 설치하고, 부산시는 이를 유치하면서 도대체 왜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정보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점이다. 양해각서에 대한 어떠한 내용(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양해각서의 존재 자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 대중들은 양해각서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협약이 21세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엄청난 협약이기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일반 대중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밀 협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단순한 의구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점은 확실해 보인다. 협상 대상인 두 주체가 분명 각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에 이런 기밀 협약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풍피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풍피두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어떻게든 분관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풍피두는 분관을 설치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협상하는 대상들과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일 것이다. 정해진 상품의 가격처럼 분관을 통해 똑같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나 대상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 조건으로 협상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설치된 분관들이 풍피두에 지불하고 있는 예산이 각기 다른 것은 이러한 풍피두의 상업적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산시의 경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시설과 운영경비를 부산시가 담당해야 하는 입장을 공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드는 풍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협약 내용을 만약 일반 대중(부산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부산시로서는 풍피두가 제안하는 비공개 기밀 협약이 쉽게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

다. 필자 소견으로는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이런 이유 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동안 부산시가 비밀리에 추진해온 풍피두 분관 유치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협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서로 협의했고, 그런 이유로 부산시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졌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은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기밀 유지에 대한 유예적인 단서로 “이 양해각서를 각 조건의 기밀성을 통지받고 수용하는 직원들과 조사, 감독, 허가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 및 모든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라고 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협약서 문건을 요구했지만 기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건강부회했다. 또한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한민국 법률,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혹은 부산시의 어떠한 관련 조례에 따라 본 양해각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는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부산시의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안하고 심의할 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심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부산시정의 민낯이 드러난 꼴이 되었다. 부산시장의 말처럼 풍피두 분관의 유치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정책이라면 시민들에게 왜 떳떳하게 드러내 공론화시키지 않는 것인가? 분명 부산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굳이 기밀 협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말 못 할 사연이 깊이 내재해 있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풍피두 기밀 협약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비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당장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 밝힐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던 풍피두와의 비밀 협약문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공개되었다. 언젠가는 모두 드러날 비밀들인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인간사에 내리는 순리임을 어찌하라.

기밀 협약도 문제지만 협약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마지막 제9조에 보이는 <언어와 준거법>이다.

9.1 본 양해각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두 버전 모두 정본이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9.2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른다.
9.3 본 양해각서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견은 당사자들이 수용한다고 선언하는 파리 국제 중재원 규칙에 따라 중재에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양해각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양해각서이기에 기본적으로 각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영어와 프랑스어로 양해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늘 주장하는 부산시가 영어 상용도시를 지향하기에 풍피두는 프랑스어로, 부산시는 영어로 작성하기로 한 것인가? 어떻게 국제관계의 협약문건에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

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가? 참으로 궁금하다.

자국의 언어로 문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국의 문화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의 뿌리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주권의 포기는 단순한 문화 주권의 포기를 넘어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바와 다름없다. 그리고 한국어 문건이 없기에 훗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협약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이 지자체의 수장이 독단적으로 맺을 수 있는 협약인가? 그 비정상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주종적인 협약임을 바로 보여주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맺어야 하는 협약에서 한국법이 아닌 프랑스법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협약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시는 일방적인 풍피두의 입장에 따르기만 한 부끄러운 주종관계의 협약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의 형식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서명란은 <조르주 풍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 회장 로랑 르 봉>이 위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이 아래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협약서에서의 당사자들의 서명은 동등하게 나란히 서명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드는 것이 통례인데, 이 협약서 문건에는 서명자의 위치가 좌우 나란한 형태가 아니라 상하로 나누어져 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번역본만을 두고 본다면 원본의 양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왜 서명란의 형식마저 문제삼는가를 묻는 이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굴욕적이었던 협약서가 마지막까지 굴욕적이었음을 이 서명란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사실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협약서들의 서명 위치를 알아보니, 협약자인 두 주체가 좌우로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하로 서명이 된 경우도 있긴 했다. 그 경우는 상하 관계에 있는 두 기관 간의 서명인 경우였다. 이것이 프랑스 협약문서의 일반적인 서명 양식이라고 한다면, 분명 부산시는 프랑스 풍피두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협약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풍피두와의 비밀협약은 스스로 문화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주종관계의 협약이란 점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 비밀협약 문서에 따라 풍피두 분관 유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부산시민들과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부산시 문화 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아 풍피두 분관 유치 진행부터 막아야 한다. 제7조에는 계약상 공익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협약이 폐기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풍피두분관유치와 부산지역문화정책, 그 진단과 대안

옥 영 식(미술평론가)

*이 글은 <CBS부산>, 옥영식 인터뷰/풍피두분관유치반대 (2024,11.14)를 옮긴 것으로, 발표자의 의견은 강조하여 굵은 글씨로 나타내었습니다.(필자)

- 아나운서** : 풍피두 분관 유치 안 된다! 지역 미술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함께 좀 들어봅니다. 풍피두미술관 분관 유치반대 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미술평론가 옥영식 선생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옥영식** : 네 반갑습니다.
- 아** : 여기서는 대표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풍피두센터 분관,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이 부산에 온다는 거 일단은 반가운 소식 같이 들리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옥** : 예 저는 일단 그 반가운 소식이라기보다는 뜬금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아** : 아, 뜬금이 없다.
- 옥** : 예 한마디로 말해서 느닷없는 소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산에서 팔십 평생을 살았어요.
- 아** : 네 80 평생
- 옥** : 부산시립미술관이라든지 현대미술관,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그 출범 과정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지켜보고 참여한 바도 있고, 미술인으로서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그 미술인의 그 하나의 관점으로서 볼 때, 과연 이 풍피두 분관 유치라는 것이 지역 문화의 현실과 토대를 제대로 진단하고 난 이후에 구상된 문화정책인가 하는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역이 지닌 문화적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문화적 독자성을 자각하고, 창의력을 고무시켜 문화적 자존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풍피두 분관 유치라는 것은 쉽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문화적 대리점의 개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종의 문화적 프랜차이즈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외세문화 의존적 발상을 통해서 부산 문화의 수준과 격을 높인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문화 논리에 불과합니다.
- 아** : 허구에 가깝다.
- 옥** : 예. 지금 우리는 문화적 창업을 할 때이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 창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대안 제시에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 네, 알겠습니다.

○ 옥 : 그다음 풍피두 분관유치가 선거 공약이었다 할지라도 정책의 추진과정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니,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항목에 ‘풍피두센터 등 세계적 미술관 유치 및 건립’이라고만 항목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문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 수립의 경우에는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시 문화예술위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피두 분관 유치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였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되었고, 시의회에서 마저 비공개로 심의를 해서 문화 행정 자체가 파행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공약은 일종의 제안일 뿐이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수립한 후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서 수정 보완해서 채택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아 :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죠. 협약이 프랑스법에 따라 체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는 근거가 없다.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독립적인 별도의 중재 법원이 관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납득이 되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옥 : 이 점에 있어서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아 : 음, 어떤 이유에서요?

○ 옥 : 그 중립적인 별도의 중재 법원이 관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협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인 발언으로 봅니다. 프랑스 법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협약서가 지닌 굴욕적인 문화적 주권 포기를 들 수 있습니다. 불어, 영어로만 된 문안과 서명의 서식에 있어서도 상호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남송우 교수가 최근 ‘대학 지성’에 발표한 “풍피두 부산 분관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라는 논고에 자세히 지적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아 : 자 그러면 시가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나 관광객 유치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있으십니까?

○ 옥 : 회의적이라는 것은, 그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경제적 효과 창출, 일자리 창출, 관광객의 수요 등 모두가 어떤 유추된 수치의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 아 : 수치에 불과하다.

○ 옥 : 예, 그래서 얼마나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서 정밀하게 계량화시켰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낙관적 전망만 있을 뿐입니다.

□ 아 : 낙관적인 전망이다.

○ 옥 : 한화 풍피두가 2025년 개관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풍피두 부산 분관이 지닌 그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위치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두고 볼 때 과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올 것인가? 과도하게 기대 수치를 높인 것으로 우려될 만한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아 : 알겠습니다. 또 이 최근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면제 결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옥 : 투자면제 심사 요건은, 천재지변의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 아 : 천재지변이 거의 전부 다?
- 옥 : 마지막 한 조항이 관계 장관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은 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풍피두 분관유치 건을 마지막 조항에 의거해서 투자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때 북항에다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 엑스포 유치가 물거품이 된 상태에서 그때의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관유치는 그 당시 북항이 아니고 이기대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 아 : 북항은 이기대로 바뀐 거죠?
- 옥 : 그렇죠. 네. 장소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2030 엑스포 유치 계획은 전부 물건너간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투자심사 면제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아 : 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근데 이제 대표님 분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 예술계도 세계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시에서도 분관 유치가 지역 예술계와 상충하거나 배타적인 이슈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옥 : 그 시너지 효과를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아 : 시너지 효과를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부산시에서.
- 옥 : 그렇죠. 일개 분관으로 해서 지역 미술계가 해외 미술계 진출 통로가 된다는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가져온다든지, 세계적 미술 인프라 구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협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과도한 기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아 : 아 자의적인 과도한 기대다.
- 옥 : 예. 현재 풍피두 분관유치의 이행 과정을 보면, 지금은 이기대예술공원 정책으로 위장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공원여가 정책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31일에 진행된 '예술공원정책 발표회'에 주제 발표를 한 유진상 교수의 "글로벌 허브도시 연계 예술문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담당관에게 요청했더니 비공개한다면서 자료제공이 거부되었습니다.
- 아 : 부산시에서 그랬습니까?
- 옥 : 예. 그래서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세상에 좋다는 일을 왜 비밀로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아 : 네 오늘 대표님, 오늘부터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라운드테이블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산시에서도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를 아울러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옥 : 현 단계에서의 그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견 수렴이란 요식적인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아 : 어, 의견 수렴을 빙자한 거다.
- 옥 : 예. 이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제기되었을 때, 초기에 구성해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온당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성사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급하게 원탁회의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걸 선후가 바뀐 행정일 뿐만 아니라, 거수기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아 : 순서가 뒤바뀌었다.
- 옥 : 그리고 구성원 자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술관 문제를 다루면서 미술인들의 참여 인원보다 다른 영역의 구성원이 많습니다.
- 아 : 예를 들어서 어떤 구성원들이 많았습니까?
- 옥 : 뭐 뭐 디자인이 뭐니, 행정이니 뭐 온갖 그 뭐 있잖아요. 아, 그건 내가 이게 지금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것은 이미 분관 자체의 유치는 기정사실로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공문에는 시민사회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시다.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니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시민단체 몇 분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문화 행정이 얼마나 질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아 :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이 부산 시민사회 문화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 옥 :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이라기보다, 저는 이 대안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산의 미래 정책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 아 : 어, 어떤 대안입니까?
- 옥 : 우리는 지금 2030년대 21세기 후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미래 전망에서, 지역 미술관 정책을 구상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점차 이행해갈 로드맵을 구상하고, 현재 있는 미술관을 재구조화하고 기능과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부산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그 기능이 90년대 모델입니다.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시립미술관은 부산미술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근 현대미술의 상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상설관을 늘려서 부산미술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정보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스템이라든지 학예의 전문화라든지 기능분화를 위한 인력충원이라든지 관리 수준을 고도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실제 비엔날레 전용관인 만큼 비엔날레 성격의 바다미술제를 이 미술관에 수용하여 '부산 국제 전시관'으로 통합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행사의 부산비엔날레라든지 바다미술제의 연구와 아카이브관 기능을 비롯해서 이 전시관 내의 주요 사무실을 여기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부산비엔날레나 바다미술제 사무실이 바깥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삼의 21세기 후반기를 이끌 신개념의 초미술관, 말하자면 뉴뮤지엄으로서의 당대 내지 미래 예술의 첨단 발원지가 될 성격을 지닌 미술관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신의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축공간의 기능을 갖춘 고도화 된 수준을 지향해서 실험, 전위, 미래예술의 모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써 제공될 수 있는 미술관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우리 자체의 주도적인 기획력에 의해서 전시가 조직되고 초대되는 미래형 미술관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미래형 미술관을 설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술관 개념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물류 금융 첨단 기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부산의 큰 그림과 성격과 상응하는 미술관의 구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 아 : 네.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 옥 : 예 지금이라도 풍피두 유치 계획을 검토해서 철회할 것을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MOU 협약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되지 않을 때는 해약 가능하다고 해두었습니다. 저는 풍피두 분관유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지극히 단선적인 견해라고 저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 : 네.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풍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 시민사회 문화 대책위원회 옥영식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대의 자연환경과 풍피두 분관 건립, 예술공간 조성의 문 제점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이기대의 자연·환경적 가치



이기대 자연공원

- 이기대 자연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기대 혹은 이기대 공원으로 불림.
- 한동안 군사작전지역이 되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1993년에야 개방되었으며, 현재는 대포 물운대 정운공순의비가 있는 구역만이 유일하게 군사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하고 있음.
- 약 8천만 년 전 안산암질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 화쇄류가 쌓여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암 및 퇴적암 지층으로 구성. 파도의 침식으로 발달된 해식애, 파식대지, 해식동굴 지형조성이 되어 있음.

이기대 자연공원의 역사

1997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일부 개방
2005	해안산책로 조성
2013.12	국가지질공원 지정
2020.7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2020.10	자연녹지지역 → 보존녹지지역 변경
2023.6	이기대공원 일대 사유지 71만2000㎡ 매입

부산국가지질공원



구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중)	국가지질공원
인증	2023년 4월 인증 목표	2013년 12월 6일
위치	부산전역	14개 구·군 (동·수영구 제외)
지질명소	20개소	12개소
면적	805.2km ² (육상 719.048km ² 해상 26.152km ²)	296.98km ² (육상 287.88km ² 해상 9.10km ²)
인증현황	46개국 177개	13개
보호수준	행위 제한 거의 없음	
자격유지	4년마다 재인증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IG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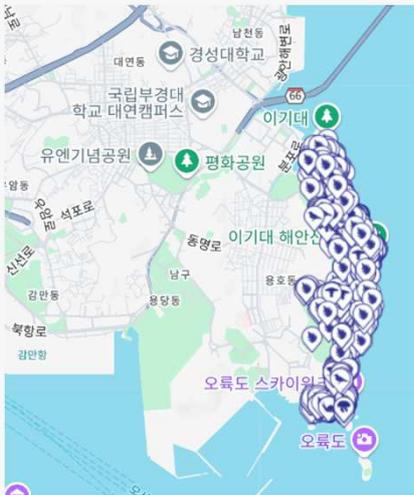


- 지질학 최고 권위 학술대회, 한국 최초 유치
- 2024년 8월 제37회 국제지질학대회(IGC) 개최 이기대 등 방문
- 지구환경 변화와 미래 위기 대응 협력을 약속하는 '부산선언'이 총회 최초로 채택함.
-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성공 개최 공로 인정받아 대한지질학회가 부산시에 감사패 수여(10.31)

제9회 부산생물다양성탐사(2020)

제9회 2020 부산

생물다양성탐사 in 이기대



출처 : 네이처링

관찰기록			
식물	457종	양서파충류	8종
선대류	2종	조류	35종
균류	38종	어류	2종
곤충	50종	조간대무척추동물류	67종
거미	71종	조간대 조류	19종
합계		749종	
멸종위기종	갯봄맞이꽃(II급), 매(I급), 긴꼬리딱새(II급), 솔개(II급)		
천연기념물	황조롱이(323-8호)		
국가적색목록 취약종	갯봄맞이꽃, 매, 솔개, 긴꼬리딱새, 꽃평의다리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자,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환삼덩굴, 붉은귀거북		

출처 : 제 9회 부산생물다양성탐사 결과보고서(2020)

이기대를 둘러싼 논란들

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2007	동방삭도 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 제출
2016.5	부산블루코스트 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 제출
2016.11	광안리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비용 편익(B/C) 지수는 0.37로 평가됨.
2021.4	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논란
2022.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진행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3.1	부산시 블루코스트 부지 매입

도시공원일몰제



2020.7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10	자연녹지지역 → 보존녹지지역 변경
2022	남구 이기대 공원 내 삼성문화재단(약 32만5000㎡) 부지 매입
2023.1	부산시 블루코스트 부지 매입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유지 71만2천㎡에 737억원을 투입해 보상 완료

이기대 고층아파트 논란



이기대 난개발 시민이 막았다... 아파트 사업 철회

입력: 2024-08-26 18:39:32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경관 훼손 31층 3개 동 319세대
아이에스동서, 사업계획 취하
시민 성토·연론 자적에 포기
“지역민 정서 고려 대승적 결정”

풍피두 분관 건립?

부산 이기대 예술공원?



제20차 부산미래혁신회의

- 부산시는 3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20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세계적 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시는 해운대와 광안리, 북항 등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에 포함된 이기대공원을 자연·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함.
- 시는 자연 속 문화 1번지 예술공원 조성을 목표로 오륙도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국제 아트센터 등 3대 거점을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힘.



결론

- 이기대 자연공원은 약 8천만 년 전 안산암질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 화쇄류가 쌓여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암 및 퇴적암 지층으로 구성. 파도의 침식으로 발달된 해식애, 파식대지, 해식동굴 지형 조성이 되어 있는 지질학적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곳임.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인해 부산시는 이기대 자연공원 중 사유지를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1만2천㎡에 737억원을 투입해 보상 완료했음.
- 부산시가 737억원을 투입해 이기대 자연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함.
- 풍피두 분관 건립이 '공공재(Commons)의 사유화'의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감사합니다

토론

1. 풍피두 분관 건립에 대한 견해
- 박경호 (화가, 그림책 작가)
2. 부산 문화 발전에 풍피두가 꼭 필요한가?
- 성백 (시각예술가 겸 문화기획자)
3.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 아닌)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산시의 선결과제
- 황빛나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미술사)

퐁피두 분관 건립에 대한 견해

박경효(화가, 그림책 작가)

처음 퐁피두 분관 건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부산시장의 부인이 화랑을 운영하는 분이기에 ‘과전불납리’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굴종적인 협약이고 막무가내의 비밀협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마라!”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참외밭에 프랑스산 멜론 총판장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격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별이는 외교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정책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퐁피두 분관 건립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위상은 세계의 유행과 흐름을 주도하는 입지를 가진 것과는 반대로 미술이라는 기초예술?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식민지적인 인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의 사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례로는 부산 동구의 초량천을 새롭게 조성하는 문화예술적인 기획의 관급공사에서 느낀 문제입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초대되었는데 그중 메인 작가로 선정된 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과 전문가들과 주변 구민들이 가지는 시선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작가의 경력은 국내외의 우수한 전시에 참여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이런 기획이 진행될 때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작가의 자격과 작품의 예술성과 적절성 등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의 자격은 화려한 경력으로 대체됩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작가의 선정. 등의 세밀한 적용보다는 유명하다는 이유와 특히 해외에서의 경력 등이 특히 많은 점수를 얻는 듯합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대체로 어려운 전문용어와 상호 가치의 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자체 공유는 물론 대중적인 공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괄호 안으로 넣고 ‘유명한 작가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로 얼버무리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량에 세워졌던 작품의 문제를 예기해보겠습니다. 그 작가의 비슷한 류의 작품을

서울 현대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하다가 가까이서 보고는 옛날 우리가 쓰던 물건이 이렇게 변모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술관이라는 맥락을 제거한. 맥락을 제거할 수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는 미술관에서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감흥입니다. 초량천과 같이 예전의 초량천을 복원하면서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열망이 강한 곳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맥락 앞에 놓인 보릿자루가 된 것입니다. 가상 맥락이 아닌 현실맥락에서 본 직관의 시선이 하는 말은 옛 동화에 나오듯이 “임금님이 별거벗었어!”입니다. 똑같이 초량천의 현실맥락에서 본 그 작품은 “왜 돈 들여서 쓰레기를 쌓아놔?”라고 번역됩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이 그런 유의 불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새로 재활용하는 고가다리에서 만든 헌 신발들을 설치한 작품도 같은 유의 문제가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과거 100년도 더 전에 인상파네 입체파니 하는 흐름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근대 모더니즘의 미술을 선두에서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프랑스는 올림픽에 내세울 자국의 대중 가수조차 마련하지 못해 전부를 타국에서 조달해야 했고, 센강의 수질개선과 올림픽 준비를 같이하겠다는 과도한? 행정의 차질로 인해 세계적인 조롱을 당했습니다. 백 년도 더 지나 화석화된 유물로 문화적인 자존감을 겨우 지키는 풍피두가 하는 것은 분관. 즉 프랜차이즈 지점 확장을 통한 본점 적자 메우기입니다. 여기에 부산의 시장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시민의 혈세를 붓고.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그 비밀협약의 이면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생도 뻘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 주동 세력과 국민의 짐 같은 수구세력과의 한 판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새롭고 참신한 힘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이돌 응원봉 시위대입니다.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리로 나왔을까? 하는 질문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K팝 그룹의 팬들입니다. 요즘 세계의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바로 그들이 추종하는 아이돌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응원봉 시위대의 직관적인 시선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빠. 언니들이 세계 최곤데 대통령이 왜 이따위 야?”

저도 아이돌 그룹들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면 참 흐뭇하면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먼저 K팝의 양식은 수많은 팝의 양식들을 재해석해서 그들의 감성에 맞게 혼합하여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ove Yourself’에서 드러나듯이 세계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 자원고갈 등의 세계적인 문제들을 앞두고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 세대와는 같을 수가 없고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주체적인 세대가 가지는 문화적 자긍심이 이렇게 시위부터 바뀌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수예술? 다양성이 생존전략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기계적인 순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예술이 가지는 의미는 대중문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유명하다.’ ‘세계적이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지역의 미술박물관으로써 역사를 탐구하고 현실을 분석하며 우리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창조적 예술을 만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할 때,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정책의 힘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문화 발전에 풍피두가 꼭 필요한가

성백(시각예술가 겸 문화기획자)

부산문화 발전에 풍피두가 꼭 필요한가?

풍피두 센터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적인 미술관 중 하나이며, 복합 문화시설로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파리를 상징하는 미술관입니다. 현대미술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피두의 설계 공모에 우리나라의 건축가 고 김수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로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여담이지만 고 김수근 건축가가 수많은 건물들을 설계하였음에도 좀 더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 제작한 건축가 이기 때문입니다. '탁하고 찼더니 억 소리 나더라' 라고 하는 그 끄찍했던 취조실, 고문실을 그의 손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가해자 입장에서 치밀하게 설계했다.'

'권력에 빌붙어 돈만 벌어진 건축가'

로컬 콘텐츠를 확보

부산시는 풍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할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세계적인 문화시설을 만들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산에는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과 같은 공립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확충하고 양질의 로컬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문화를 통해 부산예술가들이 문화 주체로서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를 육성해 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가진 인프라를 점검하고, 지역 예술인 및 문화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해양문화 - 로컬 콘텐츠의 세계화

전 세계 어디에도 3시간 내 거리에 같은 이름의 해외 미술관이 분관을 두고 있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부산은 대한민국 최대 항구도시로서 해양문화가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업, 어업 등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양문화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부산항축제, 부산바다미술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해양 관련 박물관, 문화시설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육성. 로컬 콘텐츠의 세계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부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양문화와 걸맞은 문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화의 실천을 통해 부산 문화, 부산 시민, 부산의 작가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문화 시설과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술관 공공예술의 역할

미술관 공공예술의 영역에서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술관이 공공예술의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양질의 로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풍피두 센터의 전시는 파리에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풍피두 부산의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선보이는 것이 가능한 구조 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역 작가 지역 문화가 서울을 가지 않아도 유럽에 나가지 않아도 서울 작가들이 와서 전시하고 싶은 곳. 유럽 작가들이 부산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그런 정책과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외의 해안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문화와 결합한 전시나 부산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시 등을 개최하여 부산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행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부산항축제, 부산바다미술제 등이 그렇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예산이 들쭉날쭉 하지 않고 지역 시민의 힘으로 로컬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문화 민주화 실천해야

부산은 이미 해양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축제와 박물관, 문화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가진 인프라를 점검하고, 지역 예술인 및 문화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문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 작가와 지역 문화가 서울이나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받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관이 공공예술의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양질의 로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화를 실천하여 지역 문화와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 아닌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산시의 선결과제

항빛나(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미술사)



자료1. 출처: “풍피두 전면 재검토해야”..市 풍피두와 MOU“(2024-09-09, 월/뉴스데스크/부산MBC)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로 되짚어 보기

부산시는 2024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¹⁾에 따라 건립비 1,100억원, 토지보상비 약 23억원, 예상 운영비 130억원²⁾ 외 매년 풍피두에 세금을 제외한 4백만 유로(약 60억원)를 시비로 투입하는 프랑스 풍피두센터(Centre Pompidou)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동의안(“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첨부자료1)을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했다. 위 안건은 7월 24일 원안 가결되었고³⁾ 9월 9일 풍피두센터와의 MOU를 체결, 10월 17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별표 제26호)에 따라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17일 행안부가 긴급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확정하며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부터 ‘북항재개발 및 2030월드엑스포’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위 사업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세계적 미술관 설립”과 “시민들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쓰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추진과정 대부분이 비밀협약을 이유로 공론화 없이 진행되면서, ‘밀실행정’, ‘혈세낭비’, ‘문화사대’, ‘토건문화정책’이라는 비판이 야기되었으며,^(자료1 참조) 작가들의 1인 반대 시위와 예술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측은 여전히 명확한 자료공개 없이 ‘가짜뉴스’, ‘시정을 가로막는 정치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존칭 생략)이 발제에서 제기한 “풍피두 분관 유치, 약인가, 독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실효성 있고 발전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심증이 아닌, 판단의 근거가 될 부산시의 공식 행정문건, 연구용역보고서 및 언론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의 수집과 공유, 그리고 분석이 선

-
-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2.2.9., 2022. 10. 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 <개정 2022.2.9., 2022. 10. 26.>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 10. 26.>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
 - 2) 위 액수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https://www.prism.go.kr/homepage/>)에 공개되어 있는 『2022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 (총 92페이지, 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와 『2023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총 390페이지, 수행기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3) 부산광역시의회 공식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안정보에 의하면 위 안건의 제출자는 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 경유)이며, 1차로 소관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 2024년 6월 28일 안건접수 후 7월 3일 회부, 7월 22일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원안 가결되었다. 위 일자에 대해서는 일부 기존 대시민 배포자료 및 언론자료에 다름이 있어 기준으로 삼고자 각주로 정리함을 밝혀둔다. 원자료는 [https://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bill/view.busan?menuCd=DOM_000000103008000000&billSid=15625&totalSearch=TOTAL&totalSearchKeyword=%EC%84%B8%EA%B3%84%EC%A0%81\(2025.1.13](https://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bill/view.busan?menuCd=DOM_000000103008000000&billSid=15625&totalSearch=TOTAL&totalSearchKeyword=%EC%84%B8%EA%B3%84%EC%A0%81(2025.1.13) 접속) 참조.

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는 지난 2024년 10월경부터 풍피두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그간 비공개 문서로 알려져 있던 ‘세계적 미술관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문건과 1년여 만에 동일한 수행기관에 의해 돌연 사업대상지를 이기대로 변경시킨 2023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문서들에서 자료수집을 확장해 나가면서 위 사업이 어느 정도로 근본적인 개념이나 기초 계획 없이 위험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미술협회를 포함한 다수의 작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이 배제되고 부산시의 토론회 자료 또한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토론자는 부산시의 추진목적의 논지를 중심으로 역질 의하는 방법을 통해 본 토론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풍피두 부산 분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발로에서 본 토론문은 2024년 9월 5일 제3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지연(무소속)의원이 질의하고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부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과 부산시장이 답변자로 참석한 녹취록을 토대로 부산시의 사업진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토론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첨부자료2)⁴⁾ 또한 본 토론문 작성에 활용한 주요 자료들은 향후 시민단체와 일반에서 원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자료로 별첨한다.

#사업경과

2022.1.18. 박형준시장 조르주풍피두 국립문화예술센터 로랑르본관장 면담 및 시찰⁵⁾

- 4) 위 회의자료는 현재 동영상과 텍스트로 부산시의회에서 제공 중이다. 당초 풍피두 부산 분관 설치에 반대하던 서지연 의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 뿐 아니라, 부산시의 추진 목적과 논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서지연 의원이 밝힌 시정질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이기대 문화예술공원화 민간의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이기대라는 경관과 자연의 가치, 더하여 부산시의 유의미한 상징이 될 문화예술 구역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음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부산시가 추진하는 이기대 예술공원이 부산의 상징이자 국제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 상생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서비스 기반 경제의 핵심으로 부산의 경제 도약을 위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세계적 미술관 풍피두 분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5) “시는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에서 부산 관광 홍보 행사와 더불어 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설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박형준 시장은 오늘(19일) 프랑스 로랑 르 본 풍피두센터 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분관 및 파트너십 등 모델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진 간의 사전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6일 풍피두 관장과 박형준 시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정식 논의를 했으며, 이번 방문은 화상회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준비됐다. 박형준 시장은 풍피두센터 부산분관 예정지로 북항 일원을 제시했으며, 미술관 형태 등에 대한 구상, 국제 미술 교류 및 우호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중략)이번 만남으로 세계적 미술관 부산분관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풍피두 측은 오는 5월경 부산을 방문해 현지 시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장소 논의 및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또한 매년 교류전시회(브랑쿠시전 등)를 통한 전시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등 분관 설립에 앞서 실질적인 교류로 상호 신뢰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로 「예술문화중심도시 부산」 구현 -부산시, 프랑스 풍피두센터 부산 분관 설립 첫발

- 2022.5.21. 세계적 미술관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 공고(사업비 5400만원, 낙찰/수행 기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 2022.7.1. 39대 부산광역시장(재선) 취임
6대공약>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6-1. 세계적 문화인프라 구축>6-1-2. 세계적 미술관 유치 및 건립
2023. 2. 이기대 블루코스트 케이블카 사업 최종 취소
부산시 이기대공원 일몰제 대비 토지 매입->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됨.
- 2023.3.3. 세계적미술관 건립타당성 검토 및 전시 운영계획 연구용역(사업비 1억 4천, 낙찰/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사업대상지 이기대로 변경
- 2023.7.26. 이기대예술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3억, 1차 단독입찰로 유찰)
조경설계 서안(대표 조경가 정영선) 낙찰, 착수일자 9월 22일이나 2024.10.30.에서야 선급금 지급 위한 계약 체결(완수일자 2024.11.15.)
용역 관련 보고서 미공개.
- 2023.10.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발표
- 2023.11. 2030부산엑스포유치실패
- 2024.초 부산시 경제부시장 직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직제로 변경
산하에 푸른도시국+미래디자인본부 신설
푸른도시국 3개과 중 ‘공원여가정책과’ 이기대예술공원 조성 담당.
- 2024.2. 백만평문화공원 조성 범시민협의회-글로벌부산시민연합과 푸른도시국 상호협력 협의체 구성(풍피두 부산 분관 유치 찬성 대표시민단체)
- 2024.10.31. 제20차 부산미래혁신회의> 풍피두 부산 분관이 포함되는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 발표.
=> 이기대예술공원 기본계획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풍피두 분관 설립 계획 및 이기대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이 수립 및 발표된 것임.
- 2024.11.21. 이기대 공원내 아트파빌리온 설치(사업비35억) 사업 시의회 거절**

(관련자료는 첨부자료4. 참조)

내디데!”, 부산시 보도자료, 2022.1.19.(<https://www.busan.go.kr/globalhubcity/news/1517710>)

#부산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

시민에게 환영받는 세계적 미술관 풍피두 분관 유치해야

- ◆ 세계적미술관 분관유치,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경제적 유발효과 등 효과 검증
- ◆ 분관유치에 앞서 인력수급 및 운영비, 홍보 및 준비부족과 시민과 소통부재 질타
- ◆ '문화예술 위케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기대 공동주택계획 철회 부지 활용방안 제시
 - ▲ 부산의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조화로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 촉구
 - ▲ 관광융복합 집중 필요
 - ▲ 시민과 투명한 소통 통한 시민에게 환영받는 세계적 미술관 분관유치 필요 강조

출처: 서지연 의원 보도자료, 2024/09/05

<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4/view?dataSid=29165&boardId=NEWS>

○ 풍피두 분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

-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은 20세기 현대미술의 정수로, 앙리 마티스, 샤갈 등등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 사조의 대표를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14만 점 이상이 소장(문화체육국장 심재민)
- 풍피두는 19년 11월 중국 상하이 분관을 개막했고 스페인 말라가는 21년에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7년부터 분관 개막이 계약(서지연 의원)
-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서 미술관이 특히 부족
- 엄청난 컬렉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높은 수준의 하이엔드 미술작품에 대한 향유 욕구 기회를 충족(문화체육국장 심재민)
-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우리 부산이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측면(문화체육국장 심재민)
- 부산지역 또 국내, 국외의 어떤 창작예술 레지던시 등을 통해 창작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문화체육국장 심재민)
-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생성하는 글로벌 행위자로서 기대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하기 위함이다(문화체육국장 심재민)
- 부산시립미술관과 풍피두 미술관 다시 말하면 문화생태계 안에서는 다양성, 다양성을 통한 협업과 공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함.

- 또 뮤지엄파크라는 넓은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한 자리에 문화클러스터가 모인 곳이 극히 드물고 선도적인 일임.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런 문화클러스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동양에서, 아시아 쪽에서는 그러한 시도들이 번번이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부산이 풍피두 미술관 이외에 또 부산시립미술관, 다양한 미술관들이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모이는 문화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다양성의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함.(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 매해 부산에는 50만씩의 관람객이 있는데 그 관람객들이 우리 로컬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마나 구겐하임 못지 않은 전세계적인 미술관의 하나로써의 다양한 전 세계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중요한 미술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미술관들과 협업관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경제적 효과

- 이렇게 많은 국가가 풍피두 분관 유치에 적극적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국내에서 인천시, 서산시 등에서 추진했으나 부산이 선점했다. (서지연 의원)
- 분관 모두다 경제, 문화,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았다(박형준 시장)
- 기업은 손실이 날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한화의 풍피두 분관 유치가 이익을 확신했다라는 의미로 참고할 수 있다. (서지연 의원)
- 수입을 50억 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연간 47만 정도의 유료 입장객을 근거로 해서 뽑은 수치(1만원 입장료)
-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 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졌던 합스부르크 왕가 특별전이라든지 에드워드 호퍼전이라든지 이런 큰 전시 또 인기가 있었던 전시들의 객단가와 전시기간 동안에 실제 입장권을 사서 찾았던 입장객 수 등등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산정했으나, 대단히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 개관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 상해 웨스트번드 풍피두 분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장료가 2만 5,000원 정도

○ 한화와의 중복문제

-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 부산이 서울에 이어서 미술랭 도시가 선정된 것과 같다라고 본다.(서지연 의원)
한국 내에 미술랭 도시가 서울 다음 부산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미술랭의 가치가 휘발되지 않듯이 풍피두 분관이 국내 서울, 부산에 분관이 있다고 해서 가치가 휘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서지연 의원)

○ 학예인력 보충 필요

-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풍피두 분관 유치 관련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시

- 직영으로 운영되고 조직 2팀 20명, 공무원 기간제 등 20명 총 40명
- 전체 40명 중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20명, 그중에서 학예직 포함해서 학예직 인력이 10명 정도 절반 정도
-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과 비교해 볼 때 풍피두 부산 자체의 학예직은 턱없이 부족해 보임(서지연 의원)
- 부산시 조직 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가 필요해 보임.(서지연 의원)

○ 부산은 자체 콘텐츠와 기획 능력이 충분하다

-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 가장 대표적인 성과. 지자체 그리고 공립미술관이 시민 모두에게 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문턱을 낮춘 사례(서지연 의원)
- 이제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무라카미, 이견희 전시는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수입을 하거나 안에서 만든 거지만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해외순회 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미술관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해외로 수출하는 전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서진석 관장)

○ 풍피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 교육갈증,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 기존에 큐레이팅이나 컬렉팅 뭐 예술, 역사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과도 좀 연계를 해서 금융이나 미래학, 범죄학과도 연결된 이런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교육도 연계 부탁(서지연 의원) 소더비스쿨 같은 것 필요
- 현 부산내 공립미술관과 통합 운영 가능성

○ 문화예술형 워케이션을 통한 경제적 가치 추구

- 해외 디지털 노매드를 적극 유치를 해서 적어도 26년까지는 세계적인 10위권의 우리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 진입을 하겠다는, 세계화를 하겠다는 취지

#부산시의 입장에 대한 반론 및 재고

○ 풍피두 분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

- 풍피두-메츠의 경우 자국내 소장품을 공유하는 분관(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시스템과 유사)
- 2019년 11월 개관한 중국 상하이 분관은 웨스트번드가 운영주체이자 투자기관으로 한화와 유사한 형태
- 미국의 풍피두x저지시티와 벨기에 브뤼셀의 카날-풍피두는 지역사회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카날의 경우 10년 계약을 통해 재단을 별도 구성하여 협력하는 점진적-수평적 시스템을 구축.
- 사우디아라비아는 '풍피두'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음.
- 기관명 표기에 있어 'x', '-'를 통해 협력기관으로서의 상호 수평적 성격을 명확히 함.
- 말라가, 한화서울, 부산의 경우 풍피두 00의 형태로 사용.
- 소장품 수장계획도 당초 없고, 연구와 기획이라는 미술관 학예실의 고유권한이 없는 분관 시스템이 문화생태계 안에서는 다양성, 다양성을 통한 협업과 공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면밀히 재고해 봐야 함.
- 한국을 제외하고 하나의 국가에 2개의 분관이 설립된 예가 없으며, 기타 국가들은 전시교류 방식을 활용함.

○ 세계적 미술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 세계적 미술관 분관과 세계적 미술관은 다른 지향성을 가진 개념임.
- 당초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었음에도 풍피두 분관 유치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긴급현안으로 추진하는 이유
-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당초 계획한 1종미술관이 아닌 '아트센터'로 변경, 추진된 이유.
- 아트센터는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기관임. 5년 계약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기대예술공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계적 작가들의 갤러리 및 오륙도아트센터와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이며, 적자가 연 7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종료 후 분관 외 타 관과는 조직 및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 결론적으로 번거로운 허가절차, 제도망을 피해 아트센터미술관으로 계획
- => 실질적 운영형태는 풍피두 현대미술관 부산 전용전시관- 아트센터로서의 기능X
-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은 등록사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주요 수입원은 공연(부산문화회관과 오페라하우스 설립으로 수익 기대하기 어려움)

->소장품 없는 미술관도 아닌 아트센터를 왜 만드는 것인지 재고해 봐야할 중요한 문제임.

-2020년 6월 이기대공원 일대는 난개발을 막고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자연녹지에서서 ‘

보전녹지’로 특별히 용도 변경. 북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보전녹지로 지정된 이기대를 근린공원으로까지 용도를 재변경하여 추진하는 이유

-특히, 오륙도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소관임. 지금까지 오륙도스카이워크 연장을 위한 심의도 번번히 거절된 지역을 문화관광이라는 명분으로 개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이기대예술공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때 절차용이성이 크며, 북항은 이미 북항개발계획이 있으므로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함.

-그러나, 당초 북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면서 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하고, 부산지역 내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인접한 이기대를 사업부지로 선정한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경제적 효과

- 분관 모두 경제, 문화,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말라가와 상해를 제외하고 파급효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 2회의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정적 지수는 미달로 부적격 판정.->2차 연구용역에서 조건부가치추정모형(CVM)으로 제안. 최근 지자체 기준 할인율이 55%->45%로 조정하용됨. 55% 기준으로 할 때는 CVM의 경우도 수치 부적격

- 타 풍피두 분관들과 달리 특히 부산과 같이 전액 지자체 시비, 즉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은 재정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2차 연구용역에서도 권고함.

- 현 입장료 수입의 기준은 평균 입장료 10,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이유로 아트센터 미술관으로 운영계획임을 고려하였다고 명시. 유사한 형태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참고로 입장료를 산정함

- 세계적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인원 462,052명/연간 입장료 수입은 4,620,520천원(46만 2천 520명 기준)으로 추정

- 그러나, 현재 상설전은 8개월, 기획전은 3-4개월에 불과하고, 타 지자체 국공립미술관의 경우 입장료 무료~5000원 선임을 고려할 때 시비가 투입되는 분관의 경우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 기준하여 기획전 수입만 산정한 수치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 참고로 입장객 수와 관람료를 기계적으로 정률산정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관람객수 기준 세계 6위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현재 공개된 2022년기준 입장료 수익은 35억8700만원(전체 관람객 수 894만3천841명)에 불가
- 또한 2차 연구용역에서는 예상수입에 아트상품 개발을 제안하였으나, 소장품이 부재한 분관의 경우 이미지저작권-IP사용에 대한 허가 및 수익 분배에 있어 자체 소장품으로 제작한 타 미술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운영경비에 풍피두에 지불되는 연간 브랜드 사용료 등이 누락되어 있음.

○ 학예인력 보충 필요

- 기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연면적 기준 평균하여 필요 인력수를 산정.
- 이 때문에 1차 북항 사업대상지를 기준한 필요인력이 부산현대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 보다 많이 산정되는 결과가 나옴.
- 대관형 아트센터이자 소장품이 부재한 상태로 건립될 분관에 두 공립'미술관'급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고가 필요함.

○ 부산시민 예술향유와 관련된 기대효과

- 2차 연구용역에 포함된 가치산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부산 전역에서 각 구역별로 표본을 모집한 시민들 중 45%이상이 풍피두 부산 분관을 위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답함.
- 위 수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숫자임.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풍피두 부산 분관 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 토론을 작가 및 시민단체와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로 판단됨.

#다시, 무엇이 문제인가?

아트센터, 갤러리, 미술관이 갖는 고유한 기능적 차이에 대한 미고려와 아직 이기대예술공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300억이 넘는 건립비와 매해 최소 13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풍피두 부산 분관을 '세계적'이라는 실체없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시가 다양성도 미래지향성도 지속가능성도 없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되는 '미술관', 특히 진정으로 '세계적'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과정이 미래세대를 염두해둔 지속가능성이 아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친관인사 및 조직을 중심으로 한 '시민' 끼워넣기가 아닌 진정한 사업주체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1101
------	------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가.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
- 나. 본 협약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 약 명 : 부산광역시- ○○○○○ 양해각서
- 나. 협약기관 : 부산광역시-○○○○○
- 다. 협약체결일 : 2024. 8.
- 라. 협약의 주요 내용
 - 부산광역시 ▷ 분관 건립 및 운영
 - ▷ 세계적미술관 분관 건립 및 운영
 -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작품 대여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브랜드 사용권, 운영 자문
 -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작품 대여
 - ▷ 브랜드 사용권 및 운영 자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 협약 체결 이후 사업 계획에 의거 필요시기에 예산 편성,
비용추계서[붙임2]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부산광역시-○○○○○간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협약기관 : 부산광역시-○○○○○

2. 협약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분관 건립 및 운영,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작품 대여, 브랜드 사용권,

운영 자문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		<h1>보도자료</h1>	 부산광역시의회	
배포일시	2024. 9. 5.(목)		제공부서	건설교통위원회
보도시기	배포즉시		의원명	서지연 의원
		전 화	888-8247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

시민에게 환영받는 세계적 미술관 풍피두 분관 유치해야!

- ◆ 세계적미술관 분관유치,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경제적 유발효과 등 효과 검증
- ◆ 분관유치에 앞서 인력수급 및 운영비, 홍보 및 준비부족과 시민과 소통부재 질타
- ◆ '문화예술 워케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기대 공동주택계획 철회 부지 활용방안 제시
 - ▲ 부산의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조화로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 촉구
 - ▲ 관광융복합 집중 필요
 - ▲ 시민과 투명한 소통 통한 시민에게 환영받는 세계적 미술관 분관유치 필요 강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의원〉

-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9월 5일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적 미술관 풍피두 분관 유치’ 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 부재인 추진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부산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높일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에 앞서 체계적인 운영 준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서지연 의원은 다른 국가들의 유치사례와 지자체별 유치 활동, 이미 완료된 재계약들의 결과는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효과가 검증된 사실이라며,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통해 부산이 국제적 문화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 또한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 연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취업 유발 효과가 1,888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먼저, 서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관광산업 연계 등 부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이긴 하나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현재 서울과 부산 다른국가에 설치된 분관들 각각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 분관 개관과 경쟁우위에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특히, 서 의원은 현재 운영예정인 분관의 조직규모가 총 2개팀에 40명 내에 학예직 5명을 포함하여 운영예정으로, 이는 세계적 수준의 기획력을 갖추고 있는 다른 분관들과 경쟁우위에 서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문 운영팀을 구성하여 조직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 ◇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운영비 조달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총 운영비 125억 중 티켓 및 부대 수익으로 연간 50억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으로 남은 75억에 대한 재정마련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 이어서, 서 의원은 부산시가 풍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 무엇보다 충분한 홍보 및 준비가 부족했던 27일 시민 공감 토론회를 지적하며 시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충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하며, ‘일방통행식 행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 ◇ 또한, 서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분관을 통한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부산만의 소프트 파워 강화,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부산시가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순기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덧붙여, 서 의원은 ‘문화예술 위케이션 센터’를 콘셉트로 하여 최근 이기대 공동주택 계획이 철회된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제시하며,
- ◇ 부산은 지금 민생만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관광융복합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 끝으로 서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 부산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 등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의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조화로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환영받는 세계적 미술관 분관’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